



전 시 명: 8, 960 km

전시 기간: 2019년 5월 16일(목) - 6월 22일(토) / 화, 목-토요일 오후 2 - 7시

오픈 닝: 2019년 5월 16일 오후 4시

전시장소: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99 1F

Communication: seoul@galerie-brugier-rigail.com

참여 작가: 존 크래쉬 마토스(John "Crash" Matos), 파비앙 베르쉐르(Fabien Verschaere), 존원(JonOne), 무슈 샬(M. Chat), 닉 워커(Nick Walker), 라틀라스(L'Atlas), 매드 씨(Mad C), 세트(Seth), 셰파드 페어리(Shepard Fairey)

프랑스 파리 중심에 위치한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는 다양한 어반 아트를 소개하고 있다. 유럽 아트마켓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는 아시아 컬렉터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5년동안 서울국제아트페어, 아트부산 등을 참가하며 한국 컬렉터와 문화적 교류를 해왔다. 올 해 예술의 전당, 일민 미술관 전시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더 많은 어반 아트를 선보이고자 아시아 첫 분관을 서울에서 연다.

브루지에-히가이 서울 갤러리를 오픈하며 지금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을 선정하여 파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8960km'전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에는 뉴욕 MoMA를 비롯한 전세계 17개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살아있는 그래피티의 전설이라 불리는 존 크래쉬 마토스와 뉴욕 출신작가 존원이 참가한다. 존원은 현재 프랑스 어반 아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LG전자와 아트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며 한국 관객에게 이름을 알렸고 올 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 초청을 받아 선보인 그래피티 작업으로 더욱 유명해진 예술가이다. 파비앙 베르쉐르는 서울시립미술관 '피스마이너스원'전에서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과의 콜라보작업, 경기도미술관 'G-Live: Fabien & Taeyoung', 현재 전시 중인 일민미술관 '불멸사랑'전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유쾌한 표정의 노랑 고양이 작품을 그리며 무슈 샬로 활동 중인 토마 뷔유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무슈 샬 고양이'전으로 관람객들과 소통 중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선거 캠페인 포스터로 더욱 잘 알려진 셰파드 페어리, 세계적인 그래피스트 뱅크시와 함께 영국 브리스톨에서 그래피티를 개척한 스텐실 대가 닉 워커, 오랜 기간동안 아랍과 동양의 캘리그래피를 연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 언어를 창작하여 작업하는 라틀라스, 그래피티 작가들의 성지 독일에서 750미터의 거대한 벽화 작업을 완성한 여성 그래피스트 매드씨, 영국, 로마, 파리를 비롯 중국 상하이 MoCA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꾸준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세트등 세계 유명 그래피스트 8명이 '8960km'전에



참가한다.

1970-80년대부터 시작된 여러 형태의 스트리트 아트는 비주류 예술에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으며 현재 유럽 아트마켓을 비롯한 아시아 아트페어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관전에서 브루지에-히가이 서울 갤러리는 한국 컬렉터의 관심과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엄선하여 준비한 다양한 그래피티 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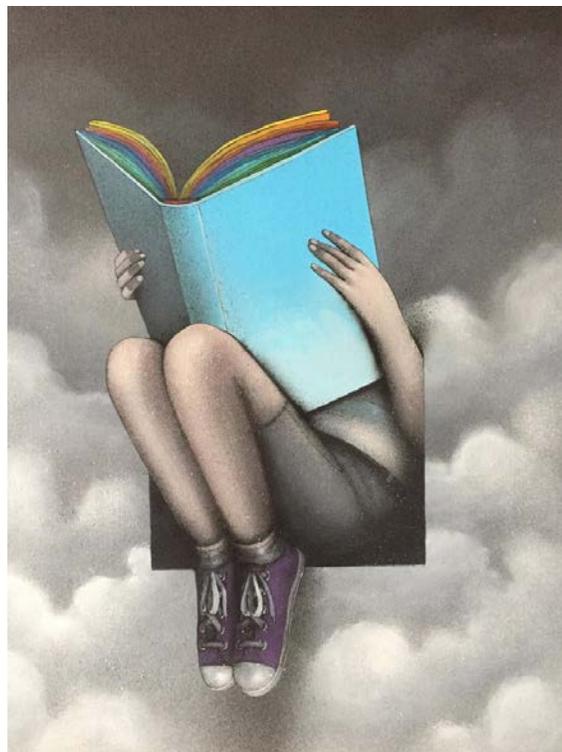
JonOne 존원 "Le Chien" 캔버스에 아크릴, 120x150cm, 2019



M. Chat 무슈 샹 "La guerre de Troyes" 나무에 아크릴과 시멘트, 55x65cm, 2018



Fabien Verschaere 파비앙 베르쉐르, « No Death », 캔버스에 수채화와 마커, 81x60cm, 2018



Seth 세트, « Heaven can't wait », 캔버스에 스프레이, 아크릴, 116x89cm, 2018